

# 인고의 5년... 잊혀질뻔한 허미정 다시 LPGA 정상에

## 요코하마 클래식 21언더파 우승

## 올시즌 한국여자·교포 10승 합작

허미정(25)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5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허미정은 22일(한국시간) 미국 앨라배마주 프래트빌의 로버트 트렌트 존스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요코하마 타이어 LPGA 클래식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6언더파 66타를 쳤다.

합계 21언더파 267타를 적어낸 허미정은 세계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17언더파 271타)의 추격을 여유있게 따돌리고 2009년 포틀랜드 클래식(당시 세이프웨이 클래식) 이후 5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19만5000달러(약 2억400만원)를 받았다.

허미정의 우승으로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은 6승을 합작했다. 교포 선수인 미셸 위(25), 리디아 고(17)의 우승까지 합하면 10번째 우승이다. 폴라 레토(남아공)와 공동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허미정은 전반에 2타를 줄였지만 4타를 줄이며 추격해온 루이스에 2타차로 쫓겼다.

하지만 11번홀(파4)에서 한타를 줄인 허미정은 13번홀(파3)에서 티샷을 홀 50cm에 붙여 가볍게 버디를 잡은 뒤 14번홀(파4)에서도 연속 버디를 잡아 루이스와의 격차를 3타로 벌리며 우승을 예감했다.

루이스가 13번홀 버디 이후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경기를 끝낸 뒤 허미정은 16번홀(파3)에서도 1타를 줄여 4타차로 앞선 채 18번홀(파4)에 올라섰다.

마지막 홀 그린에서 버디 퍼트가 홀을 지나갔지만 허미정은 1.2m 거리의 파파트를 넣어 우승을 마무리했다. 국가대표 출신인 허미정은 176cm의 큰 키에다 유난히 팔이 길어 골프에 적합한 체형을 갖췄다는 평을 들었다.

LPGA 2부 투어를 거친 뒤 2009년 1부 투어에 진출한 허미정은 첫 해에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후에는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올 시즌 퍼트의 정확도를 높여 최근 대회에서 좋은 성적은 낸 허미정은 루이스에 완승을 거두며 다시 한번 LPGA 투어 정상에 섰다.

공동 선두였던 레토는 1타를 잃고 3위(14언더파 274타)에 머물렀다. 최은정(24·불백), 유선영(28·JDX), 이일희(26·불백)는 8언더파 280타로 공동 11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이 기분이었구나... 허미정이 22일 미국 앨라배마주 프래트빌에서 끝난 미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요코하마 타이어 LPGA 클래식에서 우승을 확정된 뒤 축하 세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김민휘·박성준 PGA 출전권 획득

### 최경주·노승열·배상문 포함 한국 5명

김민휘(22·신한금융그룹)와 박성준(28)이 2014~2015 시즌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출전권을 따냈다.

김민휘는 2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 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 TPC(파70)에서 열린 웹닷컴투어 파이널스의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에서 함께 1오버파 281타를 쳐 공동 40위로 마쳤다.

파이널스 상금 랭킹 16위에 오른 김민휘는 정규시즌과 파이널스 대회 합산 상금 랭킹에서 25위에 올라 50위까지 주는 다음 시즌 PGA 투어 출전권을 확보했다.

김민휘는 웹닷컴 투어 정규시즌에는 상금 랭킹 25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플레이오프 격인 파이널스 4개 대회에서 상금 랭킹을 끌어 올렸다. 국가대표 시절인 2010년 광주어 아시아인재전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김민휘는 이후 프로로 전향, PGA 투어의 2부 투어인 웹닷컴 투어에 출전하며 1부 투어에 도전해 왔다.

일본프로골프(JGTO)에서 활약하는 박성준도 정규시즌과 파이널스 합산 상금 랭킹에서 45위에 올라 PGA 투어 진출을 확정했다.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JGTO에서 활동한 박성준은 2013년 바나H 컵 KBC오거스타 대회에서 일본 무대 첫승을 올리기도 했다.

김민휘와 박성준의 합류로 2014~2015 시즌 PGA 투어에는 최경주(44·SK텔레콤), 노승열(23·나이키골프), 배상문(28·켈러웨이)까지 모두 5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한다. 한편 2009 PGA 챔피언십 우승자 양용은(42)은 PGA 투어 상금 랭킹 125위 안에 들지 못해 파이널스 대회에 나왔지만 순위 밖으로 밀려 출전권을 잃었다. /연합뉴스



김민휘



박성준

## 연습경기까지... KIA 지긋지긋한 비와 악연 내일 실전훈련 태풍으로 취소될 듯

KIA의 연습경기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에도 비가 문제다.

KIA는 경기 감각 조율을 위해 아시안게임 휴식이 동안 4차례 연습경기를 준비했다. 23일과 24일 오후 6시 각각 한화화과 NC를 쟁 피인스필드로 불러 연습경기를 치르고, 주말에는 대전과 마산에서 연습경기를 갖고 최종 점검을 끝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호랑이 군단'을 지겹게 쫓아다녔

던 비가 다시 또 앞길을 막아섰다. 태풍 풍량이 북상하면서 23일 오후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24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는 일기 예보가 나온 것이다.

두 경기를 모두 치르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KIA는 부랴부랴 23일 경기 일정을 오후 6시에서 오후 2시로 앞당겼다.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전에 어떻게든 실전훈련을 해보겠다는 계산이다. 24일 경기는

기약이 없다.

지난 14일 경기를 끝으로 프로야구는 아시안게임 휴식기에 돌입했다. 4일턴으로 체력 훈련에 공을 들인 KIA는 연습경기 일정에 맞춰 3일턴으로 훈련 일정을 세워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비가 끼어들면서 잔여경기 일정 준비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KIA는 지난 8월 비 때문에 10번이나 경기

를 치르지 못하고 일찍 짐을 쌌다. 9월의 시작도 비였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두산과의 홈경기가 이를 연속 취소되는 등 비와의 악연이 계속 되자 '비와 타이거즈'라는 우스갯소리가까지 생겨났다.

연습경기까지 우천취소 위기에 놓이면서 하늘만 쳐다보게 된 KIA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근 광주 영주종합체육관에서 광주지역 60세 이상 시민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9회 광주시장기 어르신 생활체육 축제'가 열렸다. <광주시생활체육회 제공>

## 광주시장기 어르신 생활체육 남구 우승

### 5개구 60세 이상 5000여명 참가...동구 준우승

광주 남구가 '제9회 광주시장기 어르신 생활체육 축제'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시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5개구 생활체육회와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광주지역 5개구 60세 이상 어르신 5000여명이 참가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생활체육과 화합, 장기자랑 등에서 팀워크가 돋보인 남구가 종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준우승은 동구에 돌아갔다. 동구는 또 독창적인 입장과 열띤 응원을 펼쳐 입장·응원상을 수상했다.

김창준 광주시생활체육회장은 "어르신 동호인들의 열정과 활기가 넘친 축제였다"며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길이 ~500cm, 10T 통나무 1개

식탁 · 좌탁 · 테이블 · TV · 침대 · 책상

**통원목가구**

저가 소나무가 아닙니다! 친환경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광주최초판매 (가정용/인테리어) 헐리웃/국내배우 인기상품 ☎1899-0240

www.hong79.com  
광주 동구 장동 58-15